

■ 1977年 圖書館界의 回顧

學校圖書館界

蘇 時 重
培材高司書教師

I. 머리말

지난날을 되돌아 본다고 하는 일은 즐거운 면도 있겠고, 즐겁지 않은 면도 있겠다. 자기가 열심히 살아온 과거라고 하면 회고하여 본다는 일이 즐거워 지겠고, 그렇지 못한 과거라고 하면 즐겁지도 않은 상태가 될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하고 향상된 상태가 아니라고 봐서 前者보다는 後者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당면된 과제들이 해결되고 진척되었다기 보다는 퇴보에 가까운 정도로 담보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즐겁지 않은 상태의 지난날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문제되는 것은 틀추어서 앞으로 향상될 계기를 찾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 된다.

II. 학교도서관의 문제들

1. 조직의 문제(직제 및 직원)

교육 현장인 학교내에서의 조직중에는 교무, 연구, 학생(지도), 교도, 윤리, 새마을 등의 주임 또는 과장의 직제(職制)가 있다. 이러한 직제의 선상에다가 학교도서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직제를 달라고 하는 것이 학교도서관계의 요망 사항중의 하나인 것이다. 즉 학교도서관에도 “주임” 또는 “관장” 제도를 두어 학교의 교무위원회에 속하는 간부 진영에 들 수 있도록 요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도서관계의 현황을 보면 몇몇 사립고등학교에서는 도서관장의 직제를 두어서 주임 또는 과장의 선을 지켜지도록 하는 곳(이러한 때도 진정한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 취해진 것 보다는 부득이한 인사조처로 취해지는 경우도 있지만)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은 연구주임 밑에 있거나 심지어는 서무부소관아래 의뢰로 운영되는 상태까지도 있다는 사실을 살펴 본다면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될 문제이다.

학교도서관에 근무할 직원의 수자는 圖書館法施行令

第6條 “司書職員 또는 司書教師等の 配置 基準”의 제 2항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그 학생수가 1200인 이하인 때에는 1인의 사서교사나 1인의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두며, 그 학생수가 1200인을 초과할 때에는 2인의 사서교사나 2인의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둔다”고 명시되어져 있다.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의 문제성에 대한 논란도 없지 않으나 학생 1200명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된 학생수의 학교에서는 2인의 사서교사를 두어 지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져 있다.

이러한 조항을 제외하고서라도 실무경험에 의하면 최소한 학교도서관을 학교도서관 다음계 운영하려면 (여기서 학교도서관 다음계 운영되는 도서관이라 함은 학교도서관이 언제든지 개방되어져 있어서 교사나 학생들이 어느때든지 학교도서관 자료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의 최대공약수와 가능대로 개각식 제도도 되어져 있어서 이용자가 자유스럽게 자료를 접할 수 있는 상태와 사서교사가 상주하여 참고봉사: Reference Work를 하면서 이용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최소한 1인의 관장과 사서교사 2인, 용원 겸 가방보관을 맡아 볼 인부 2인 승 5인은 기본적 인원이어야 된다고 본다. 학교도서관도 학교조직의 한 부서인 만큼 일반 교과를 담당할 교사들도 학교도서관 부서에 배속되어져 학교도서관 업무에 보탬을 준다면 더 좋은 것이 된다. 일반 교과 교사가 학교도서관 부서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인의 인원은 있어야 함을 강조 하고 싶다. 그러나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의 현재 학교도서관의 실정은 인원배치면에서 천태만상(千態萬像)인 상태이다. 전임 사서교사 1인을 학생수에 관계 없이 배정하는 경우, 도서관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단순한 자료 관리만을 위해 배치하는 경우, 아예 일반 교과 교사에게 형식상 겸무하도록 하는 상태로 방치하여 두는 경우 등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문제가 아

학교도서관 시설 기준

품명	규격 및 구분	구분			규격	비고
		I	II	III		
		1~100명	101명~1,000명	1,001명 이상		
도서	600(책)	600+4×(100명을 초과한 아동, 학생수)	4,200+2×(1,000명을 초과한 아동·학생수)	4,200+2×(1,000명을 초과한 아동·학생수)		과란의 4, 2라는 숫자는 100명, 1,000명을 초과한 분의 1인당 책수이다.
1. 서가	3(개)	위의 방법으로 산출된 도서수÷210	위의 방법으로 산출된 도서수÷210	위의 방법으로 산출된 도서수÷210	폭 90cm 6단 서가	1단 35책, 6단으로 210책 수용, 소수점 이하 올림
2. 열람책상	3(개)	3+2×(100명을 초과한 아동, 학생수÷300)	9+2×(1,000명을 초과한 아동, 학생수÷200)	9+2×(1,000명을 초과한 아동, 학생수÷200)	90cm×180cm	6시용, ()안은 소수점 올림
3. 열람의자	18(개)	6×위의 방법으로 산출한 책상의 수	6×위의 방법으로 산출한 책상의 수	6×위의 방법으로 산출한 책상의 수		1인용
4. 카드함	(서랍수) 3	3×위의 방법으로 산출한 도서수÷800	3×위의 방법으로 산출한 도서수÷800	3×위의 방법으로 산출한 도서수÷800	서랍 안쪽 규격 36cm	도서 1책마다 카드 3매, 서랍 하나에 800매 수용, 소수점 이하 올림
5. 카운터	1(개)		2	3		
6. 카운터의자	1(개)		2	3		
7. 제본도구	1(개)		1	1	1조	제단용구, 철용구, 밀착기 구, 파킹용구
8. 신문가	1(개)		1	1	폭 90cm	
9. 잡지가	1(개)		1	2	폭 90cm	
10. 비어티컬파일	1(개)		1	2	서랍 4개	
11. 그릴규케스	1(개)		1	1		
12. 레코오드케스	1(개)		2	3		
13. 슬라이드필름케스	1(개)		2	3		100매 수용
14. 진열케스	1(개)		1	1		100개 수용
15. 슬라이드 비유어	1(개)		1	1		유리 부침

주: 국민 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는 동일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다.

자료: 김경일 저. 학교도서관의 조직과 관리.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71. p.215.

낼 수 없다. 각 학교마다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 최소한 5인의 인원을 배치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현상에도 문제성은 있는 것이다.

2. 시설문제(위치 및 설비)

학교도서관의 위치를 어느곳에 두느냐? 하는 문제는 그리 쉽게만 취급해서는 않된다. 좋은 위치에 자리잡은 학교도서관은 그만큼 많이 이용되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각급 학교도서관의 위치를 살펴 보면 독립건물로서 이용하기 쉬운 바른 위치에 있거나, 독립건물이기는 하나 이용하기에 외떨어져서 어렵게 되어져 있거나, 학교도서관이 독립건물이 아니고 교실등으로 쓰여지는 다른 건물 안에 들어와 겸용으로 쓰여지는 건물 안에 위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중앙에 위치해서 이용하기에 좋은 곳도 있고 건물의 맨 윗층에 위치하게 해서 이용하기에 불편 할 뿐만 아니라, 마지못해 학교도서관을 설치하는 식으로 하는 학교도 있다.

학교도서관 내부를 설비하는데도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들도 있겠으나 가능한 다음의 학교도서관의 시설기준안에 맞도록 해야 한다.

3. 예산문제(도서비 신설 요망)

학교도서관에 쓰여질 예산은 학교예산에서, 학교회 국민단비에서, 육성회비중에서 충당되도록 예산이 세워

지는 줄로 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 자체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학교 형편에 따라서는 쓰여지기도 쉽지 않아서 학교도서관의 예산은 자료 충당에도 부족할 뿐 아니라 그림의 떡(?)인 격이 되어지기 쉬워서 더욱 칠채되는 요인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고로 학교도서관계에서는 학생들의 등록때에 "도서비"를 새로이 신설해서 도서관 예산으로 충당하여 달라고 요구하곤 했으나 항상 실현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예산은 일을 추진하는데나,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와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풍부한 예산의 바탕이 되어지기를 바랄 뿐 아니라 사서교사 자신은 부지런히 활동해서 학교사회내에서 인정받도록 하고 스스로 활동해서라도 예산투쟁(?)을 해서 예산 확보가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학교도서관의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3. 기타문제(독서 및 도서관교육)

중등학교에서의 청소년들에게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도서관 지식을 보급시키기 위해서도 독서교육을 포함한 도서관 교육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요망함에도 교육현장에서 교과과정의 편성은 아랑곳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교부의 문교정책에서 교과과정의 편성에 삽입되기를 바라는 원칙 이외에도 사립학교 경우에는 학교 형편에 따라 재량껏 응용할 수도 있겠는데 잘 읽히는 실정이

학 교 도 서 관 협 활

학교별	구분 학 생 수	관 수		학생 1인당 평 수	1 과 식 당 학 생 수	학생 1인당 책 수	학생 1인당 예 산 액	학생 1인당 연간증가책수
		관 수	설치율(%)					
구 민 학 교	5, 807, 448	1, 757	28. 8	0. 006	61	0. 739	17원62전	0. 142
중 학 교	1, 529, 541	603	33. 6	0. 014	34	1, 253	149원17전	0. 212
고 등 학 교	647, 180	696	77. 5	0. 061	9. 5	4, 256	582원15전	0. 580
계	7, 984, 169	3, 056	34. 8	0. 013	38. 2	1, 123	84원83전	0. 204

주: ① 학교도서관 설치기준은 한국도서관협회 제정 “학교도서관 시설기준(안)”을 참고.

② 학생수는 문교통계연보(1971)에 의함.

③ 관수의 설치비율은 전체 학교수에 대한 도서관 설치 비율임.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업무현황. 1973, p. 431.

다. 이러한 도서관 교육이 실현된다고 할 때 그 일을 가르쳐야 할 사서교사의 자질문제도 하나의 숙제가 되는 것은 하나, 도서관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줄로 안다. 도서관교육이 교과과정에 편성되어지면 현재 교단에 설 주제가 없는 사서교사에게도 교사자격증상에 가르쳐질 주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질 뿐 아니라, 도서관학과 졸업반 학생들이 고교실습을 나왔을 때에도 도서관 실습만이 아닌 가르치는 실습도 할 수 있는 명실공히 사서교사의 교생실습이 되어지게 된다.

Ⅲ. 회고와 전망

1. 회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나 활발히 움직여지는것 같은면서도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 있고, 정지되어져 있는 것 같은면서도 움직여지는 상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1977년도의 학교도서관계는 후자에 속하는 면으로서의 밝은 면을 찾아 미흡하면서도 아쉬운 데로의 1년을 보내는 일들을 회고하여 본다. 제도적으로 별스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서교사들이 스스로 모여서 마음을 합하고 뜻을 모으며 연구 활동을 한 일은 보람스러운 일 중의 하나이다. 서울의 경우, 6월 8일 사서교사(서울) 연구회에서 자체 연구발표회를 공립중학교 도서관에서 가졌다. 즉 이두형선생의 「교과별 기본자료목록설정, 활용을 통한 고등학교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는 참석한 일선 사서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도서관교육 문제의 하나로 동성중학교(사서교사: 김승환)에서는 독서지도 교육이 실행되어지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경기도, 서울고, 경북고, 경기여고, 제물포고등 기왕의 독자적인 건물과 시설을 갖춘 학교도서관 외에 1977년도에는 경동고등학교에서 새로운 학교도서관이 신축된 일은 기쁜 일 중의 하나이다. 또 올해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박영덕 교사의 「지역사회학교 일환으로서의 학교도서관」이란 제목으로 학

교도서관 분야에서 주체 발표가 있었다는 일도 반가운 일이다. 배재고의 경우, 학교도서관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도서관 주임제 즉 도서관장제를 채택하여 도서관장이 교무위원의 일원이 되며 학교정책에 반영되고 학교도서관의 최종 책임자가 되게 하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2. 전 망

특별한 기대감 없이 새년도를 맞이하는 듯 하다. 그러나 마음은 또한 희망을 갖고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줄로 안다.

1978년도 서울의 교원 채용 순위고사의 첫발표를 보면 사서교사의 중목은 없다. 시교육위원회에서의 무관심과 일선 학교의 무관심등으로 공립학교에서 필요한 사서교사수는 없고 또 공립학교에 갈 길이 없다는 해석이 된다. 단, 사립학교에 필요에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바라는 새년도 소망중의 첫째는 도서관협회의 활동이 좀 더 적극적 이기를 바라고, 학교도서관부회의 활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되어 지기를 바란다. 우리들의 힘을 모은 결정체로 우리들을 대변 해주고 권익(權益)을 옹호 해 줄 유일한 단체이기 때문이다. 새년도에 바라는 바의 둘째는 사서교사들이 좀 더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다. 노력하는데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사서교사 각자가 주위 환경에서 인정 받게 되어지므로 도서관의 인식도 자연히 점점 달라지게 된다. 열심히 일하고 연구해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각자가 행할때 학교도서관계의 전체가 발전되므로 사서교사는 특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새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는다.

Ⅳ. 맺음 말

학교도서관이 잘 되어지는 길은 법의 제정아래 제도적으로 잘 되어져 있거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잘하고 있는 교장등 상사를 만나거나, 사서교사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개척하여 나가거나 하는 등의 요인을 들어 볼 수 있다. 물론 위의 모든 요소가 일치되어서 잘 맞아지면 더 말할 나위없이 좋겠다. 잘 맞이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사서교사 자신은 그냥 바라만보고 방관할 수는 없다. 스스로 노력하고 개척해서 한걸음씩 精進하여 나아가는 자세를 갖어야 하겠다. 그래서 不利한 조건아래에서도 그러한 환경과 싸우고 이겨서 바른 교육의 현장인 학교사회에서의 기동역할을 하는 도서관이 되어지기를 빈다.